

귀신을 말하는 책들과 공연 '고스트판타지-세계귀신대탐험전'

공포, 당신이 믿고 있던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찰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 다. 믿거나 말거나 박물지 같은 세 상을 살다보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할 거라는 믿음이 불쑥 고개를 들더군요. 1950년대 말 영국 런던 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한 여자가 돌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라고는 없었으며, 목격자들은 여자의 몸에서 불길이 번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인체자연발화현상의 한 예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흔트리는 불가항력의 힘을 인정하는 순간, 현실의 어떤 희극도 위안이 될 수 없습니 다. 이따금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 오래전 겪은 일처럼 느껴질 때, 누군가 뒤에서 등덜 미를 와락, 낚아채는 느낌이 들 때... 오늘밤 푸른빛의 원귀冤鬼가 나타나 당신을 질겁케 하더라도 그 원 귀가 심약한 마음에서 비롯된 이미지일거라 위안하지는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당신과 접촉 을 시도하는 찰나임이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당신도 두 려움에서 얼마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 * *

소설 <유령의 집>(소설집 《바늘》 수록작품)에서 '얼굴 없는 화자' 는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끔 되면 장식품이라고 믿었던 이 노인이 혹시 유령의 집에서 나온 저승사자나 변신에 능한 늙은 여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믿고 있던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찰나."

다람쥐동이나 문어발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공원, 철제의자에 앉아 그녀는 '유령의 집' 의 표를 받 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포악한 밀렵꾼이지요. 누군가 놓은 덫에 걸려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면서부터 그는 온 집에 덫을 놓아 쥐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의 처형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쥐가 담긴 덫을 그대로 물 에 넣어 익사시키거나, 약 먹고 죽은 쥐를 불에 태우거나... 처형에 대한 재미가 시들해지면 그는 잡은 쥐들을 박제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아이를 불러 박제과정을 지켜보게 하거나 박제를 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는 때로 고양이 가 쥐를 사냥하듯 그녀를 잡기도 합니다. 그녀가 두려움 없이 온전히 숨을 쉬는 시간은 아이가 독한 포르말린과 붕산 냄새를 참고 쥐를 박제하는 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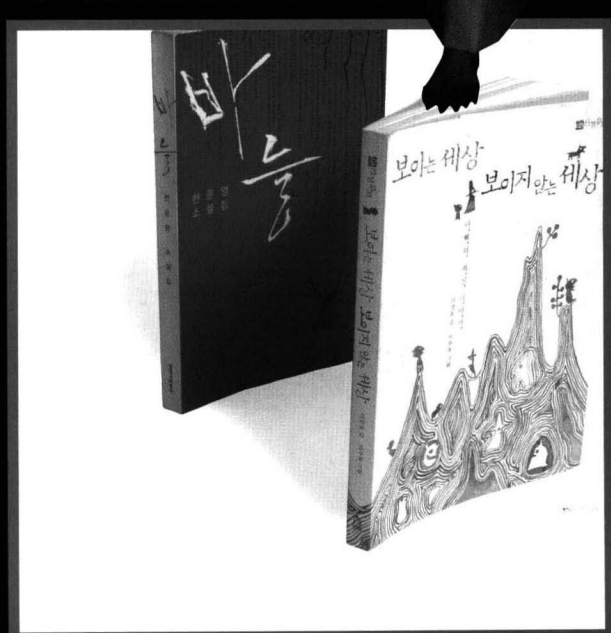
여자와 아이가 꾸러가는 '유령의 집' 은 수선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우물을 오르내리는 '채터 니', 성난 화마火魔처럼 출렁이는 턱수염을 가진 '외눈박이' 등의 조악한 귀신이 당신의 걸음을 잠시 불 들어 세울 뿐입니다. 이깃 유령의 집에 입장료를 지불했다는 것이 황망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당신의 발 목을 감각스레 낚아채는 낫설고 거친 손아귀, 움푹 꺼지는 허방의 기습 들은 당신의 가슴을 쏠이게 할 테니 말입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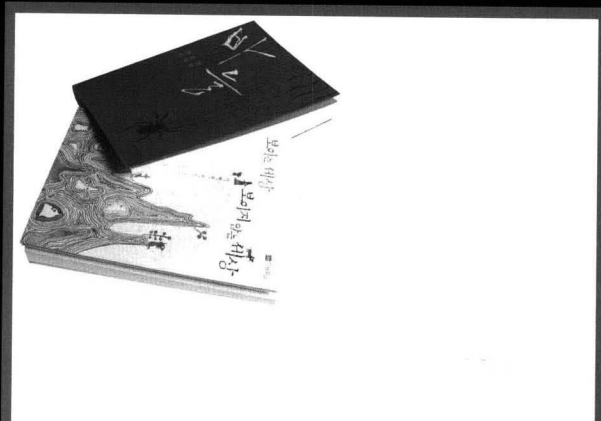
조악한 귀신 모형이 아니더라도, 사실 귀신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 다.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은 귀신에게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열한 가지 이야기 고개를 차례로 넘는 동안 당신은 바람난 남편이 죽인 아랑을, 계모의 모함에 죽은 장화와 흥련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뱀이 된 여승, 저승을 갔다 돌아온 연안거사를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게서야담》 《금계필담》 《병세제인록》 등 옛 문헌 속의 귀신들을 한 자리에 모신 책은 당신이 지나쳤던 귀신들의 진면과 이면을 소소히

바늘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바늘》천운영 지음 | 창비 | 258쪽 | 값 8,000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이강욱 지음 | 이부룩 그림 | 보림 | 224쪽 | 값 9,000원

밝혀놓습니다. 귀신들의 풀어헤친 머리칼은 기괴하게 보이기 위한 장식
이 아니라는군요. 머리칼을 중요하게 여겼던 어인들이었던 만큼, 머리
를 완전히 풀어헤친 귀신에게는 뭔가 심각한 사연이 있음을 말하는 것
이라 합니다. 옛 문헌에 어인의 원귀가 곤잘 등장하는 것은 어인들의 가
혹한 당대의 삶을 또 반증하는 것이라 하지요. 선악의 심판관인 엄라대
왕은 지와 덕을 갖춘 인물이라 하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온전히 가시는 듯도 합니다. 귀신은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으며 귀신도
감동하는 인품도 있습니다. 원귀를 만나더라도 지혜롭게 처신한다면 삶
과 죽음에 대한 성찰 하나쯤 얻을 듯도 합니다.

* * *

자, 못다 빠지나온 유령의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유령의 집은 막바지
에 다다랐습니다. 출구쯤에서 만날 흰 봉땃터미의 미라만이 남아있군
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하니 미라쯤은 두려울 것이 없겠단가요?
미라가 있는 관 옆에는 미라의 뇌와 장기를 담은 병이 잠깐 놓여 있습

니다. 자칼과 원숭이 모양의 뚜껑을 열면 잘 마른 심장과 장기를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미라가, 기계
장치가 없다면 조금도 길을 수 없는 하반신 불구의 미라라면, 등골이 조금 서늘해지지는 않는지요. 방부
와 박제에 탁월했던 그에게 그것을 배운 아이가 미라쯤은 또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스치지
않는지요. 마당에서 쥐를 쫓다 목발을 놓친 그의 앞에 목발을 든 여자가 살의를 변뜩이며 서있었다면, 그
리고 공교롭게도 여자와 아이가 같은 쥐띠라고 한다면...

원귀는 대체 누구입니까. 흰 봉땃터미의 미라입니까, 유령의 집 입구에서 만난 괴이쩍은 여자와
유령의 집 기계를 작동시키는 여자의 아이입니까? 얼굴 없는 화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본 그녀는 어찌
먼 처음부터 유령의 집에 속한 하나의 기계장치에 불과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 해도 두려움에서 '얼마간' 자유로울 뿐이라고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얼마간일 뿐이지요.
두려움은, 믿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찰나, 당신을 찾아갑니다.

글 | 박용두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

공 연 정 보

고스트 판타지 세계귀신대탐험전
장소 : 서울 코엑스 3층 장보고홀
기간 : 2004년 8월 31일까지
시간 : 오전 11:00~오후 10:00(입장시간 오후 08:00까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드라쿨라 늑대인간 프링켄슈
타인 구미호 등 세계의 귀신들이 총집합한 아주 특별한 '유령의
집'이 코엑스에 마련되었다. 구미호는 왜 꼬리가 아홉 개인지, 강
시는 왜 팔을 쳐들고 공공 뛰어다니는지를 친절히 알려주지만, 그
것과 친근해졌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귀신의 나라, 모
험의 나라, 공포의 나라, 마법의 나라로 걸음을 옮기는 동안, 당신
은 당신이 믿고 있던 많은 것에 배반을 당할 것이다. 이 속에서 특
히 뒤를 조심해야 한다. 수많은 동·서양의 흉흉한 원귀들은 끝까
지, 아주 끝까지 당신의 뒤를 쫓는다. 2004년 여름을 서늘하게 할,
아주 특별한 '유령의 집'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